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99호 2026년 5월 3일(가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오늘의 미사

부활 제5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독서 : 사도행전 6,1-7 ▶ 화답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2독서 : 베드로 1서 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p>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 : 요한 10,1-10
---	---

성가 ▶ 입당: 34 ▶ 봉헌: 215,216 ▶ 성체: 163 ▶ 파견: 136



사목공지

- 5월 3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5월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가 없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5월 7일(목) 오후 7시 미사 후 성체 강복이 있습니다.
- 5월 봉성체 안내
5월 봉성체는 5월 21일(목, 오전) 서쪽 지역, 5월 22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5월 17일~23일)
- 매월 넷째 주 5월 23일(토), 24일(일) '한끼 나눔'

특별공지

[하와이 코나 로우(Kona Low) 폭풍 피해 복구 특별 모금]

코나 로우 폭풍으로 수해를 입은 하와이 여러 본당과 가톨릭 학교 복구를 위해 특별 모금을 실시합니다. 하와이 가톨릭 커뮤니티 재단을 통한 신자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부 참여 링크 (Hawaii Catholic Community Foundation)

<https://www.hawaiicatholiccommunityfoundation.org/support-flood-relief-efforts/>



구역 및 단체

- ① 사목평의회 모임
일시: 5월 3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 ② 다락방 모임
일시: 5월 10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 ③ 펠시티 구역 모임
일시: 5월 10일(일) 오후 5시
문의: 김사비나 721-1055
- ④ 카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5월 10일(일) 오후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 ⑤ 솔렉 구역 모임
일시: 5월 12일(화) 오후 3:30
문의: 이명노 비오 227-5630

※ 제10차 성령 쇄신 세미나 안내문

기타공지

일시	2026년 5월 22일(금) ~ 5월 24일(일) 5월 22일(금): 16:00-22:00, 5월 23일(토): 10:00-22:00 5월 24일(일): 12:00-19:00 (참석을 원하시는 모든 신자분 참석 가능합니다.)
장소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지도신부님	김현우(바오로) 신부님 (인천교구 해양사목국 부국장)
대상	모든 교우분 (참가비 1인당 \$70)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 전, 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선교부: 성정숙(벨라뎃다) 808-291-0947 • 교육부: 이영미(마리아) 808-225-1751 • 자모회: 김스텔라(스텔라) 808-469-9601 • 남성 레지오: 구도인(스테파노) 808-741-2554 • 성령 기도회: 안린지(마르첼라) 808-391-8347



헌금

5월 16/17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4월 25일 / 4월 26일: \$4,243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271명
	주일헌금	교무금	특별헌금		
	\$2,832	\$1,000	\$411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흥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미사 : 말씀 전례(11) 말씀 전례 중 신앙고백

성경과 강론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느님 백성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흠숭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미사 중 “신앙고백”이라는 예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앙 고백문에는 니케아(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사도신경 두 종류가 제시됩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특정한 날에만 신경을 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일과 대축일에 사제와 백성이 함께 노래하거나 낭송하며,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미사 때에도 바칠 수 있습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7항). 한국교회는 니케아 신경보단 사도신경을 자주 사용하지만, 서구 교회 대부분은 니케아 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신앙 고백문 중에 선택권은 온전히 지역교회의 판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야 하는 점은 단지 니케아 신경이 길다는 이유로 사도신경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편교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325년 니케아공의회에서 이단을 배격하고 정통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채택한 기도문입니다. 니케아 신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밀바탕이 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 정통 신앙고백문입니다.



알아둡시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문으로 니케아 신경보다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비자들을 위한 일종의 길잡이이며 교육 지침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기본적인 신학적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 로마 미사 경본의 전례 규범에서는 신앙 고백문을 바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8. 강론이 끝나면, 규정에 따라 신앙고백 곧 신경을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19.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대신에, 특히 사순시기와 부활 시기에는, 이른바 사도신경 곧 로마 교회의 세례신경을 바칠 수 있다.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신앙을 실현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신앙고백 후에는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잔치인 성찬례가 시작됩니다. 이 성찬례가 시작되기에 앞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경건한 고백을 봉헌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거룩한 대화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사를 통해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느님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친교는 미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 부활 5주일 강론 요약본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동시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과부들에게 돌아가는 배급 문제로 차별이 생기자, 공동체 안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점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입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본래 사명인 말씀 선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따로 세워 봉사를 맡깁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각자의 역할이 살아 있는 질서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더 널리 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두 “살아 있는 돌”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곧 모퉁잇돌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중심 위에 서 있을 때 공동체는 굳건해집니다. 동시에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자 사명을 지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 안에서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이나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도 당신의 일을 이어 더 큰 일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살아 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며,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